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D:REAM 학생회

제 30 회
학술의 밤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정착지원 방안

2024. 11. 21. Tur
18:00 ~ 20:00
MOKWONUNIV. U408

목 차

I. 학술제 일정	2
II. 모시는 말씀	3
III. 아낌없이 주는 나무 활동보고	5
IV. 학술 토론 발표	8
V. 프로포즈 ‘人’ 활동보고	20
VI. 통계야 놀자 활동보고	24
VII. 마음자람 활동보고	27
VIII. 수어 동아리 (소리 없는 사랑) 공연	30

2024년 사회복지학과 학술제 일정

사회 : 김승연

- 제 1부 개회식 (18:00~19:20)
 - 축하공연 : 댄스공연 (윤여민 외 1명)
 - 개회사 : 김 동 기 교수 (사회복지학과 학과장)
 - 학과 및 학회 활동 보고 : 이 다 원 (사회복지학과 학생회장)
 - * 학과 예산 사용내역 공표
 - * 사회복지학과 연간 활동보고
 - * 경과보고 영상시청
 - 동아리 : 활동보고
 - * 아낌없이 주는 나무 (회장 : 황 호 연)
 - 장애인 탈시설을 주제로 한 토론
 - * 찬성 측 (임세연 외 2명)
 - * 반대 측 (이다원 외 2명)
- 쉬는시간 (19:20~19:30)
- 제 2부 동아리 발표 (19:30~21:00)
 - 동아리 : 활동보고
 - * 프로포즈 ‘人’ (회장 : 손 초 하)
 - * 장애체험의 장 공모전 수상작 발표 (홍 주 영)
 - * 통계야 놀자 (회장 : 임 세 연)
 - * 마음자람 (발표자 : 강 진)
 - 동아리 : 수어공연 - "선택의 길목에서" & "시작의 길목에서"
 - * 소리 없는 사랑 (회장 김선주 외 24명)
 - 학술제 시상식
 - * 학술팀 : 최우수상 / 우수상
 - * 봉사상 : 최우수상 (1명) / 우수상 (2명) / 장려상 (4명)
 - 장학금 전달
 - 제 30대 학생회 인사
 - 제 31대 학생회 소개
 - 폐회식

모시는 말씀

안녕하세요. 목원대학교 ‘사람 사랑’ 사회복지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는 김동기 교수입니다. 저희 학과에서는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 방안’을 주제로 30번째 학술문화제를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학과에서는 거주시설 장애인의 삶과 탈시설 욕구, 그리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회복지적 개입방안을 찾아보고자 이번 학술문화제를 기획하였습니다.

본 학술문화제에서는 2개의 학술팀이 탈시설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치열한 토론을 할 것이며, 더 나아가 학술발표 이외에도 학생회 활동보고, 수어동아리 ‘소리없는 사랑’의 수어공연(주제: 장애인 탈시설)와 프로포절 작성 동아리인 ‘프로포즈 人’, 청소년 상담동아리인 ‘마음 사람’, 사회조사분석사 동아리인 ‘통계야 놀자’ 그리고 우리 학과의 대표적인 봉사동아리인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경과보고, 봉사상 시상식, 장학금 전달식 등 다양한 공연 및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재학생 여러분, 사회에서 우리 학과를 지원하는 든든한 동문님들 모두를 환영합니다. 마지막으로 2024 학술제를 준비한 학생들에게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과장 김동기

모시는 말씀

안녕하십니까 사람사랑 사회복지학과 제30대 드림학생회 학생회장 19학번 이다원입니다. 우리 사람사랑 사회복지학과는 큰 사회적 이슈 중 하나인 ‘장애인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방안’을 주제로 이번 제30회 학술문화제를 밝게 빛내보고자 합니다. 장애인 탈시설화는 단순히 시설에서 나오는 것을 넘어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오랫동안 우리 사회는 장애인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설 중심의 시스템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이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내에서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제를 학술문화제에서 다루는 이유는 탈시설화가 단지 시설에서 벗어난다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자립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주거지원, 교육 및 직업 훈련, 정신적 지원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차별 받지 않고 평등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 변화와 정책적 뒷받침도 필요합니다.

이번 학술문화제를 통해 학우 여러분의 예비사회복지사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가로서의 견해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1년 간 사람사랑 사회복지학과 발전에 노력한 학우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선후배와 동기들이 준비한 학술발표 및 동아리 발표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4년 11월 21일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 회 장 이 다 원

“아낌없이 주는 나무 1년 발자취”

“아낌없이 주는 나무”				
지도교수	김 동 기 교수			
회 장	황 호 연(4학년)			
부 회 장	정 지 민(3학년)			
임 원		1분과	2분과	3분과
	차장	황 호 연(4학년)	남 죠 이(3학년)	이 금 미(3학년)
	과장	정 지 민(3학년)	김 현 우(2학년)	김 소 현(2학년)

안녕하세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회장 19학번 황호연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아낌없이 주는 나무’ 경과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사랑과 헌신의 자세로 모든 사람과 세상을 향해 아낌없는 나눔과 섬김의 손길을 펼친다는 의미로 만들어졌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1997년 3월 17일에 90명의 회원으로 시작되었으며, 같은 해 목원대학교 공식 동아리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는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모든 재학생들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 가입되며, 올해는 1, 2학년 재학생들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 필수 참여로 총 112명의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올해 정기 봉사 통계한 것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재학생들의 봉사활동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연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상반기 정기 봉사 진행 결과입니다. 1학기에는 1학년이 55명, 2학년 39명, 3학년 9명, 4학년 9명으로 종합사회복지관에 60명이 배정되어 봉사를 진행하였고, 장애인 분야에는 22명, 노인 분야에는 21명, 그 밖의 가족센터, 청소년 센터 등 기타 분야에서 9명의 학우들이 배정되어 총 112명의 학우들이 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 진행 결과입니다.
하반기에는 1학년 50명, 2학년은 39명, 3학년 7명, 4학년 2명으로 종합사회복지관에 43명으로 배정되어 봉사하였으며, 장애인 분야에서 37명, 노인 분야에서 8명 그 밖의 기타 분야에서 10명의 학우들이 배정되어 총 98명의 학우들이 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주나 활동 내역입니다.
먼저 상반기에 진행된 이벤트입니다. ‘글자 속 숨은 퀴즈를 찾아라’라는 주제로 학우들에게 봉사활동 관련 정보를 퀴즈를 통해 알려드린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번 이벤트에 많은 학우분들과 교수님들께서 참여해 주시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다음은 기관 연계 봉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월드 비전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꿈 디자이너 비전 원정대’라는 사업명으로 매달 한 번씩 아주나 임원 전체가 참여하여 활동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아동들이 자아 탐색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 탐색을 하며 기초 지식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 여러 체험 활동을 통해 진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활동을 위주로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아주나는 행복한우리복지관에서 개최한 ‘한마음 가족사랑 체육대회’를 다녀왔습니다. 이 체육대회는 저희 학과에서 곧 진행을 할 사랑+어울 한마당에 대해 미리 경험을 해보고 많은 배움을 얻기 위해 가게 되었습니다. 체육대회를 다녀오면서 ‘사후 대처’보다 ‘사전 예방’을 중

점으로 두어야 한다는 점을 배웠으며 작은 불편이나 위험 요소를 미리 점검하고 조치함으로써 더 큰 사고를 방지할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단순히 규칙을 지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사랑+어울 한마당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어울 한마당은 올해 제4회로 9월 28일에 진행되었습니다.

이때 저희 아주나는 장애 아동들과 비장애 아동들이 재미있고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준비하였습니다.

저희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위해 평일, 주말 구분할 것 없이 여름방학부터 시간을 맞추어 회의를 진행하고 물품 제작을 하기 위해 힘을 썼습니다.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과정에서는 간사 기관인 행복한우리복지관을 방문하여 슈퍼비전을 받았고, 최대한의 피드백을 수용하려 했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올해는 재학생들의 게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시연 영상을 제작하였으며 학과 유튜브에 업로드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이렇듯 저희는 이번 사랑+어울 한마당을 준비하면서 참여하는 아동들에게 보다 많은 소중한 추억들을 남겨주고 싶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재학생 여러분들의 도움과 노력이 있어서 이번 사랑+어울 한마당이 큰 사고 없이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저희 2024년 ‘아낌없이 주는 나무’ 경과보고를 끝으로 마지막인 저희 분과별 인터뷰, 복지관 선생님들의 인터뷰 영상 시청 후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방안”

토론팀	
지도교수	김 동 기 교수
찬 성	임세연(4학년), 홍주영(4학년), 송호석(3학년)
반 대	이다원(4학년), 김유경(3학년), 정재민(2학년)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방안

2118031 송호석

2118054 임세연

2118068 홍주영

1. 시설 내 장애인의 인권 수준

■ 시설 안 장애인의 인권 열악

- 1) 1:1 지원이 X → 1명이 여러명이 케어하는 구조
- 2) 시설 특징
 - 폐쇄성
 - 비선택성
 - 권력의 불균형성
- 3) 시설에 원해서 들어간 것이 X
- 4) 시설 안에서 장애인의 학대 → 안전에 열악

■ 200개 장애인시설 인권실태 조사결과

- 2024년 2월 보건복지부 장애인생활시설 인권 실태조사 결과
 - ↳ 39개 시설에서 인권침해 사례 59건 발견

- 1) 성폭력 1건, 성추행 5건 등 성 관련 의심사례 총 6건
 - 2) 폭행 의심사례 6건, 학대 5건, 체벌 12건 (손들기, 밥 주지 않기 등)
 - 3) 수치심 유발사례 6건(남성 장애인에 목욕, 옷 갈아입히기 등 여성 종사자 또는 봉사자 수행)
 - 4) 식자재 위생관리 및 환경 불량 15건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등)
 - 5) 통장관리 및 종교 강요 등의 9건
 - 위법 시설 및 종사자에 대해 형사고발, 시설장 교체 등 행정처분 조치
- ※ 이렇듯 현재 장애인시설에서의 인권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장애인 시설 입소 결정의 자발성

- 1) 전국 중증 장애인의 경우
 - 강제 및 설득 62.9%
 - 자발적 14.3%
 - 모름, 기타 17.8%

- 2) 전국 정신 장애인의 경우

- 강제 및 설득 62.2%
- 자발적 13.4%
- 모름, 기타 24.4%

3) 비자발적 입소비율이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

- 67.9%,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62.2%

4) 자발적 입소 중에서 사유

- 가족에게 부담을 주기 싫거나 자신을 돌볼 수 없기 때문 → 61.4%, 53%

※ 자발적인 입소 중에서도 상당 비율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호에 따른 선택이 아닌 외부 환경적인 요소에 의한 입소임을 의미

■ 장애인 탈시설 욕구도

1) 전국 중증장애

- 단순 탈시설 희망률 48.6%

2) 전국 정신장애

- 단순 탈시설 희망률 61%

3) 전국 청소년 장애인

- 단순 탈시설 희망률 63.2%

※ 주거나 지역사회 서비스와 같은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를 가정해 탈시설 의사를 질문한 결과

적게는 42%, 높게는 81%의 비율이 나타남.

지원시 탈시설 희망률 평균 65% 달해 매우 높은 수치 보임.

■ 탈시설 후 만족도 조사결과

- 1) 시설 거주 장애인들이 60% 이상 지역사회로의 이동을 원하였으며, 탈시설 후 대부분이 만족함
- 2)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 향상
- 3) 자아존중감 향상
- 4) 삶의 만족도 10점 척도 중 7.05점의 평균으로 조사됨

■ 법적

1)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권장
- 장애인이 사회의 일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탈시설 정책지지
- 이 협약에 따르면 장애인이 자신이 선택한 생활 방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권리로 명시

2) 헌법

- 헌법 제 10조 제1문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밝히고 있으며, 제14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하여 그 권리를 보장

※ 탈시설이 특이사항이 아니라 시설거주가 특이사항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

2. 장애인의 욕구 중점

■ 장애인 당사자의 탈시설 만족도 관련.

조사대상 700명 중 조사에 응답한 487명 가운데 400명이 시설을 나오기 잘했다고 평가함. 시설을 나오기 잘못했다라고 평가한 사람은 487명 중 17명에 그침.

시설을 나와 건강 상태가 매우 좋아졌거나 좋아진 편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59.5%. 변화가 없다고 응답 한 응답자가 30.8%.였고 나빠졌거나 매우 나빠졌다고 응답한 사람은 9.7%에 그침.

새로운 주거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79.7%에 달함.

2024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서울시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2009년에서 2022년 장애인 거주시설을 나와 서울시에 정착한 장애인 7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생활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 700명 중 487명이 조사에 응답했는데 응답한 487명 중 대다수인 400명이 시설을 나오기 잘했다고 평가했다. 시설 퇴소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는 ‘더 편리하고 나만의 공간이 있어서’(74.5%), ‘시설에서 정한 일정에 따르거나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내가 선택할 수 있어서’(52.3%), ‘가족, 친구, 지인 등을 보고 싶을 때 만날 수 있어서’(27.5%), ‘돈을 벌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어서’(26.3%) 등을 그 이유로 꼽았다.

반면, 시설을 나오기 잘못했다라고 평가한 사람은 487명 중 17명에 그쳤다. 또 시설을 나와 건강 상태가 매우 좋아졌거나 좋아진 편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59.5%.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30.8%.였고 나빠졌거나 매우 나빠졌다고 응답한 사람은 9.7%에 그쳤다. 또한 새로운 주거에 만족한다는 응답 또한 79.7%에 달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통해 탈시설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애인 탈시설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의 의견이다. 장애인은 탈시설을 원하고 있고 만족하고 있다.

■ 장애인의 탈시설 욕구

국가인권위원회가 2012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의 약 58%가 시설 밖에서의 생활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3. 탈시설 관련 지원방안

탈시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인별 탈시설 지원 계획 및 다양한 탈시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첫째 장애인 생활센터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은 지역 탈시설 지원센터 전담인력으로부터 탈시설 준비에 관한 상담 및 정보 제공을 받을 수 있다.

둘째 탈시설 단기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탈시설 욕구 조사를 받게 된다.

단기체험홈

희망강북장애인자립재활센터에서 서울시 지원사업으로 진행한 발달장애인 단기체험홈을 성료함.

희망강북장애인자립재활센터는 4월에 참가자 모집을 통해 2명의 참가자를 모집했고 강북구에 위치한 숙소에서 7월~11월 관계형성 3회, 1박 2일 발달장애인 단기체험홈 5회를 진행했다. 3회의 관계형성에서 발달장애인의 욕구를 확인하고 5회 단기체험홈 프로그램에서 직접 시장에 나가 식재료를 구입하고 조리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다양한 체험활동과 자립에 필요한 분리수거와 같은 청소 등을 경험했다. (일상생활훈련)
또한 안전체험관을 방문하여 화재, 지진 등 위급 상황시 대피할 수 있는 훈련을 통해 혼자서 대피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천광역시는 시설 퇴소 후 자립을 꿈꾸는 장애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최대 2년간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설 퇴소 후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소득재산 기준 충족시만 (2024년 기준 중위소득 95% 이하(1인 기준 월 2,117천원)이어야 하고, 재산은 3억원 이하, 금융재산은 1천만원 이하)

세부 추진계획

- 지원규모 : 4명(시설 퇴소 장애인 중 비수급 장애인)

- 지원예산 : 24,480천원(전액 시비)
- 지원금액 : 713,100원/월
- 지원기간 : 퇴소 월로부터 최대 2년간

IL센터 : 센터장과 직원 대부분이 장애인 당사자이다. 권익옹호, 동료상담, 개별 자립지원, 자립생활 전환 등 4가지가 기본 사업 23년 기준 전국에 254개 시설이 있고 예산으로 525억 4500만원을 받았다. (안전체험 교육 포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유지 지원으로 장애인 고용 의무제도 운영을 실시하고 고용 장려금 지급 및 고용 장벽을 해소시키는 활동을 한다.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하여 직업 훈련센터를 운영하고 장애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 및 알선하는 활동을 한다.

장애인 고용 환경 및 인식 개선 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만성질환 및 장애 관련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에게 지속적인 건강 관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정부의 일부 지원이 이루어지며 낮은 금액의 본인 부담 비용이 든다. 특정 대상의 경우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

건강보험 혜택 지원을 같이 받을 수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민간 자격증을 취득한 인력들이 중증 장애인들의 사회활동을 자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이다.

신체, 정서, 가사, 사회활동 등 다양한 부분이 지원되며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으로 상당 부분 지원된다.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방안

1918037 이다원

2218016 김유경

2318058 정재민

<목차>

서론

- I. 연구 배경 및 목적
- II. 장애인 탈시설의 개념과 취지
- III. 보고서의 구성 및 방향

본론

- I. 탈시설화의 문제점
- II. 삶의 질 저하와 안전성 문제
- III. 가족과 지역사회에 대한 과도한 부담
- IV. 전달체계의 부족
- V. 경제적 비효율성

결론

- I. 탈시설화 정책의 현실적 한계

참고문헌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자립을 목표로 한 탈시설화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복지 이슈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도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과 자립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탈시설화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이상적인 목표를 추구하는데 비해, 실제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와 지원 체계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중증 장애인의 경우, 돌봄 공백과 삶의 질 저하, 가족의 과도한 부담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기존 시설 중심 복지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해왔으며, 이러한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배제하기보다는 개선과 보완을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탈시설화의 현실적 한계를 짚어보고, 대안적 복지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는 탈시설화 정책이 장애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적 이상과 현실간의 괴리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기존 시설 복지의 장

점을 현대적으로 개선하고, 장애인과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속 가능한 복지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

II. 장애인 탈시설의 개념과 취지

장애인 탈시설은 장애인이 장기적으로 수용되는 거주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과정과 정책을 의미한다. 이는 장애인의 기본적인 인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탈시설화가 장애인의 생활 안전과 안정성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현실적 우려와 논란도 존재한다.

III. 보고서의 구성 및 방향

본 보고서는 탈시설화 정책의 문제점과 그로 인한 장애인 및 사회의 부담을 분석하고, 대안적 방향을 제안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본론

I. 탈시설의 문제점

대개 탈시설화를 추진할 때 쉬운 작업을 먼저 진행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주로 경증 장애인이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로 옮겨가고(탈시설) 중증장애인은 시설에 남겨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두 체계가 병존할 경우, 새로운 서비스는 자신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기존 시설의 역할을 축소하지 못하거나, 기존 시설은 폐쇄를 피하려고 서비스 필요도가 낮은 이용자를 흡수하는 일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이중적 비용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¹⁾

탈시설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욕구와 선호를 기반으로 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필수적이다. 기존 시설이 소규모화되거나 폐쇄되더라도, 대안 서비스가 계획, 관리, 평가 과정에서 장애인의 참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기존 시설과 유사한 한계를 가질 수 있다. 특히 지역기반 서비스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부족하면, 이는 단순히 시설 형태만 변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²⁾.

더불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거나 재원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탈시설화를 강행하면, 고비용의 집중적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적절한 대안을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중증장애인은 탈시설화 과정에서 배제되거나, 지역사회로 전환되기 쉬운 경증장애인들에게만 집중되어 손쉬운 목표 달성에 치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은 가장 큰 지원이 필요한 이용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³⁾

II. 삶의 질 저하와 안정성 문제

거주시설의 문제는 운영개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도 존재한다. 거주시설을 현대화하고 사생활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개혁하면, 전문적인 의료 및 간호지원, 안전 및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 따라서 거주시설의 다양화, 특성화, 전문화를 통해 보다 적합한 환경을 제공

1) 유럽 위원회가 발간한 [탈시설 전환에 대한 특별전문가 보고서]

2) 유럽 위원회가 발간한 [탈시설 전환에 대한 특별전문가 보고서]

3) 유럽 위원회가 발간한 [탈시설 전환에 대한 특별전문가 보고서]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전면적인 탈시설화는 시기상조라는 반대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 주장은 장애 당사자의 자기결정권 존중과 더불어, 장애인복지 선진국에서 발생한 재시설화 사례 및 탈시설 실패 사례로부터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탈시설화 이후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지원 체계가 부족해 지속적인 건강관리에 실패하는 경우가 다수 보고되었다.⁴⁾

서울시가 2024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54명 중 6명(10.9%)이 퇴소 후 3년 이내에 사망했다. 하지 척수 마비 장애인이었던 A(68)씨는 2021년 퇴소한 지 한 달 만에 5욕창에 걸렸으나 뒤늦게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패혈증으로 3개월 만에 사망했다. 지적장애를 가진 B(47)씨는 가족이 없는 무연고 상태에서 2021년 시설에서 퇴소 후 같은 해 사망했다. 지체장애를 가진 C(51)씨는 2019년 퇴소 후 3년 만에 숨졌다.⁵⁾ 이러한 사례는 탈시설화 이후의 의료 및 돌봄 체계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을 경우, 장애인의 삶의 질이 심각하게 저하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시설은 지속적인 건강 관리와 안전망 제공에 강점이 있지만, 탈시설화는 이러한 지원 체계를 약화시킬 수 있어 중증장애인의 생존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⁷⁾

또한 서울시의 '장애인 탈시설화 추진계획' 현황에 따르면, 탈시설 장애인의 약 30%(338명)만이 독립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약 60~70%(764명)는 연고자 인도, 타 시설 강제 전원(주로 도시 외곽 지역), 사망 등의 이유로 사실상 자립에 실패했다. 이러한 통계는 탈시설화가 단순히 시설에서 나오는 것만으로 성공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자립을 위한 지원 체계와 안전망이 부족할 경우, 많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삶의 질이 심각하게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자립에 실패한 중증장애인들이 다시 시설로 돌아가거나 생명을 잃는 사례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⁸⁾

III. 가족과 지역사회에 대한 과도한 부담

탈시설을 하게 된다면 장애인의 돌봄을 가족이 떠안게 되는 사례가 많다. 특히 9)중증장애인과 10)최중증장애인의 경우, 가족이 필요한 전문적 지원 없이 24시간 돌봄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가족 구성원에게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동시에 초래하게 된다.¹¹⁾

또한, 지역사회 내 장애인을 위한 의료, 주거, 돌봄 서비스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역 주민과 기관이 장애인 지원 책임을 강제적으로 분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

2020년 보건복지부 전수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시설 거주자 중 59.2%가 시설을 떠나기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 이유는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서"(21.9%), "경제적 자립에 자신이 없어서"(14.7%), "가족이 이곳에 있기를 원해서"(9.7%), "함께

4) 에이블뉴스, 탈시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 보장'에 초점 맞추면 해답이 보인다, 정형석, 2023.07.21

5) 피부와 밑에 있는 조직이 지속적인 압력에 의해 손상되어 발생하는 궤양

6) 조선신문, [단독] 탈시설 장애인 추적해보니...죽거나 의사소통 불가, 김경필, 2024.10.29

7) 유럽 위원회가 발간한 [탈시설 전환에 대한 특별전문가 보고서]

8) 여성경제신문, 서울시 '장애인 거주시설 다양화 정책'확대...내년 '탈시설 예산' 전액삭감, 김현우, 2023.11.17

9)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장애가 매우 심한 사람

10)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발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1) 유럽 위원회가 발간한 [탈시설 전환에 대한 특별전문가 보고서]

살 가족이 없거나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서"(4.8%) 등이었다.¹²⁾ 이 결과는 탈시설화 과정에서 장애인 본인의 적응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담을 암시한다. 특히, 장애인이 자립에 실패하거나 경제적 문제로 인해 다시 시설로 복귀할 경우, 가족이 돌봄의 주요 책임을 떠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가족에게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

IV. 전달체계의 부족

탈시설화 과정에서 주거, 의료, 소득, 활동보조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체계가 부족하다. 주거 부분은 공공 주택 지원 정책의 한계, 체험홈과 자립생활가정 등 지원 프로그램의 수량적 한계 및 다양성 결여에 따른 당사자 선택 제한, 직접 주택 마련시 비용 부담 등이 있고, 소득 부분은 취업이 어려워 노동을 통한 소득 확보가 어렵다(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노동 지원 서비스 미흡), 부양의무제도에 의해 가족이 있는 경우 수급자 탈락 위험 및 불안감 상존 등이 있다. 일상생활에서는 장애등급 재산정 과정에서 등급 하향에 따른 활동보조 탈락 위험 및 불안감, 시설퇴소 후 자립과정에서 활동보조 신청 및 인정기간 지원 체계 미비활동 보조시간 부족, 최종증 장애인의 경우 24시간 활동보조가 필요하지만 일부 지자체 외 지원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 의료 부분에서는 거주시설은 지속적인 건강관리에 강점을 갖고 있지만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의료지원체계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실제로 탈시설한 사람들이 자립생활을 포기하고 시설로 복귀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의료문제 때문이다.¹³⁾

또한, 탈시설-자립지원체계 및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체계가 부족하다. 탈시설을 결심한 장애인들은 주거, 소득, 의료, 활동보조 등 수많은 문제들을 현실에서 직면하게 된다. 그래서 시설에 있을 때부터 많은 준비를 해야 하고, 시설에서 나온 이후에도 문제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통합적인 원스탑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만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지역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는 지역기반서비스도 체계적이지 않을뿐더러,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울시의 직업교육이나 취업알선에 대해 알지 못하며 잠재능력 발휘나 욕구 충족을 위한 기회가 많지 않다고 말하였다. 취업은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에서 스스로 생활할 수 있다는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들이지만 이를 위한 지원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¹⁴⁾

중앙정부의 지원이 미비, 지방자치단체 간의 정책 격차 역시 탈시설 이후 소득/의료 지원의 불안정,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미흡로 이어지며 전달체계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¹⁵⁾

V. 경제적 비효율성

탈시설화 과정에서 기존의 시설 서비스와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가 병존할 경우, 장기적으로 이중적인 비용 부담을 초래한다는 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 기존 시설이 폐쇄되지 않고 운영을 지속하면, 새로운 서비스와 함께 중복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¹⁶⁾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주거, 의료, 활동보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체계적인 지원 인프라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는 이러한 서비스가

12) 시설 장애인들이 탈시설을 원치 않는 진짜 이유, 정다혜, 2022.05.12, 비마이너

13) 박숙경, 탈시설을 가로막는 저해요인

14) 건국대학교 이호영, 서울시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5개년 추진계획의 한계

15) 건국대학교 이호영, 서울시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5개년 추진계획의 한계

16) 유럽 위원회가 발간한 [탈시설 전환에 대한 특별전문가 보고서]

체계적이지 않고 준비가 미흡하여 충분한 재원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추진할 경우, 높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서울시의 탈시설화 추진 결과, 약 60~70%의 장애인이 탈시설 이후 재시설화되거나 자립에 실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단순한 정책 실패를 넘어 재정적 손실로 이어지며, 장애인들의 의료비 증가, 응급 상황 대응 비용 등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¹⁷⁾ 마지막으로 중증 장애인의 경우 24시간 활동보조와 같은 고비용 집중 서비스가 요구되지만, 예산과 자원의 한계로 인해 이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탈시설화를 추진할 경우, 지원의 형평성과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¹⁸⁾

결론

I. 탈시설화 정책의 현실적 한계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은 자립과 인권 보장을 목표로 제시되지만, 현재의 준비 부족과 정책적 한계로 인해 오히려 장애인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탈시설화는 그 자체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능 정책이 아니며, 정책 실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현실적 한계가 드러난다.

탈시설화 개념은 다양한 해석과 입장 차이로 인해 정책 방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일부는 시설을 개선하며 점진적으로 탈시설을 지향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으로 이해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대규모 시설을 폐쇄하고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 자립 생활을 하는 경우만을 탈시설로 엄격히 정의한다. 이처럼 명확한 개념 정립과 이해 당사자 간의 합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탈시설화를 추진하는 것은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발달장애인들은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직업교육이나 취업 지원이 부족하며, 잠재능력 발휘와 욕구 충족을 위한 기회도 제한적이다. 이는 발달장애인들이 탈시설 이후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생활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어렵게 만들고, 탈시설화가 이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로 작용한다. 또한, **통합적 자립지원체계가 미비**하여 장애인들은 시설에서 나오기 전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하거나,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어 장애인들의 자립이 실패로 끝나는 사례가 많다.¹⁹⁾

탈시설화는 기존 시설과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의 병존으로 인해 이중 비용이 발생하며, 예산 낭비와 자원의 비효율적 사용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²⁰⁾ 또한, 현재의 사회적 인프라 부족과 준비 미비로 인해 탈시설 장애인의 상당수가 자립에 실패하고 다시 시설로 돌아가거나 사회적 지원망에서 벗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이는 탈시설화가 장애인의 삶의 질을 반드시 향상시키지 못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²¹⁾

또한, 중증 장애인과 발달 장애인을 위한 특화된 대안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들의 탈시설화를 강행하는 것은 위험하다. 24시간 활동보조와 같은 고비용 서비스 제공이 제한된 상황에서, 탈시설화는 이들 장애인에게 필요한 안정적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안전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특히, 자립 준비가 부족한 장애인에게 탈시설화는 사회적 소외와 고립을 야기

17) 여성경제신문, 서울시 '장애인 거주시설 다양화 정책' 확대...내년 '탈시설 예산' 전액삭감, 김현우, 2023.11.17

18) 유럽 위원회가 발간한 [탈시설 전환에 대한 특별전문가 보고서]

19) 서울시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5개년 추진계획의 성과와 한계

20) 유럽 위원회가 발간한 [탈시설 전환에 대한 특별전문가 보고서]

21) 여성경제신문, 서울시 '장애인 거주시설 다양화 정책' 확대...내년 '탈시설 예산' 전액삭감, 김현우, 2023.11.17

할 수 있다. 이어서, 탈시설화는 관련 기관, 지역사회,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간 충분한 합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 일부 시설 운영자들과 지역사회는 탈시설화로 인해 예산 감소, 시설 폐쇄, 돌발 행동 증가 등을 우려하며 강한 저항을 보이고 있다. 또한, 장애인 스스로도 탈시설에 대한 불안과 거부감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강행하는 것은 오히려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탈시설화는 준비와 실행 조건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될 경우 장애인의 안전과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탈시설화를 대안으로 삼기보다는, 기존 시설을 현대화하고 전문화하여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시설의 개혁, 다양한 대안 서비스 마련, 장애인과 가족의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탈시설화가 아니라, 시설과 지역사회 기반 지원의 공존을 통해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접근이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프로포즈 ‘人’ 동아리 경과보고”

“ 프로포즈 ‘人’ ”	
지도교수	이 상 우 교수
회 장	손 초 하(4학년)
부 회 장	이 가 은(4학년)
팀 원	김민범(4학년), 최성훈(4학년), 김민지(4학년), 김아령(4학년), 서유나(4학년), 이서연(4학년), 이수용(4학년), 이윤주(4학년), 이정담(4학년), 임세연(4학년), 정다빈(4학년), 채지수(4학년), 최효빈(4학년), 한지윤(4학년), 홍주영(4학년), 박정원(3학년), 김민채(3학년), 박서현(3학년), 백진주(3학년), 김유경(3학년), 이예원(3학년), 이주은(3학년), 이현희(3학년), 정위진(3학년), 송호석(2학년), 백유진(2학년), 정승원(2학년), 정재민(2학년), 조승아(2학년), 김형호(1학년), 나성원(1학년), 정상지(1학년), 최은정(1학년), 황수연(1학년)

안녕하십니까, 목원대학교 사람 사랑 사회복지학과 [프로포즈'인'] 동아리 회장 21학번 손초하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프로포즈'인' 경과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프로포즈'인' 동아리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진행한 후, 1년간의 활동과 성과, 2025학년도를 바라보는 향후 계획 및 비전을 말씀드리고 올해의 수상작 발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프로포즈'인'은 프로포절 동아리입니다. 프로포절이란 프로그램 계획서이자 사업 제안서로, 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프로포즈'인'은 이런 프로포절을 작성하여 다양한 공모에 참여하며, 또한 프로포절 작성방법과 예산편성 등의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여 전문 사회복지사로서의 발전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동아리 부원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담당 교수님이신 이상우 교수님 밑으로 회장과 부회장이 있으며, 부회장을 포함한 13개의 팀으로 나뉘어 13명의 팀장과 그 부원들, 총 3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활동입니다. 프로포즈'인' 1년간의 활동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며, 다양한 분야의 공모 참여, 경과보고와 공모 분배를 위해 매달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전체 모임 및 조장모임, 프로포절 작성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학기당 1회 진행하는 프로포절 외부특강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프로포즈'인'은 올 한 해 동안, 프로포절류의 공모 8개를 포함한 UCC, 포스터, 표어 등의 다양한 분야의 공모전을 총 29개 참여하였습니다. 그중 두 건의 수상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0회 장애체험의 장 공모전의 UCC, 포스터 각 부문이 있는데, UCC 부문의 경우 잠시 뒤 수상작 발표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며 포스터 부문은 “일반인이 아닌 비장애인”이라는 인식을 개선하고 강화하기 위한 작품을 제작하여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 및 비전입니다. 프로포즈'인'은 프로포절 역량 향상을 통해 유능한 전문사회복지사로서의 발전 및 배출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활동합니다. 또한 전문성과 협력을 기반으로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와 대표 동아리로서의 자리매김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모든 학우가 참여하는 동아리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2025년도에는 활동, 공모, 모임 세 분야에서의 개선 및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활동으로는 프로그램 제안서 발표회입니다. 더욱 높은 질의 프로포절과 부원들의 동기 강화를 위해 교수님들과 함께 발표회의 시간을 가지고 피드백을 나누며 보다 높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모의 경우, 한 조당 한 달에 공모를 두 개 이상 참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는 효율적으로 성과를 끌어올릴 수 있으며, 정기적으로 조원끼리의 의사소통 및 커뮤니티를 확장시키는 효과 또한 불러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모임과 조장모임 등 운영을 더욱 체계화시키는 것입니다. 프로포즈'人'은 작년 2학기부터 운영을 해 온 신설 동아리로, 아직 다양한 시도를 통해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상작을 발표하기에 앞서, 앞으로 저희 프로포즈'人' 동아리가 여러분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공모 참여 경험과 수상 경력을 통해 성장하여 전문사회복지사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라며, 이상 프로포즈'人' 동아리 회장 손초하였습니다.

프로포즈 ‘人’ 수상작

* 제29회 장애체험의 장 공모전 - UCC 부문 최우수상
(2118054 임세연, 2118068 홍주영, 2318031 백유진, 2418013 나성원)

* 제29회 장애체험의 장 공모전 - 포스터 부문 장려상
(2118027 서유나)



“통계야 놀자 동아리 경과보고”

“통계야 놀자”	
지도교수	이 현 교수
회 장	임 세 연(4학년)
부 회 장	이 현 희(3학년)
팀 원	서유나(4학년), 임석찬(4학년), 조용덕(4학년), 김민지(4학년), 최예은(4학년), 최효빈(4학년), 홍주영(4학년), 박주현(4학년), 최성훈(4학년), 황호연(4학년), 박정원(3학년), 진정연(3학년), 박은주(3학년), 이민정(3학년), 강진(2학년), 조승아(2학년)

안녕하세요.

통계야 놀자 동아리 회장 21학번 임세연입니다.

지금부터 2024 통계야 놀자 동아리 경과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동아리 소개로 시작하여 2025학년도 계획을 소개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아리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아리 이름은 통계야 놀자 동아리이며 지도교수 이현 교수님 밑으로 회장 부회장을 포함하여 총 15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통계야 놀자 동아리는 2024학년도 신설 동아리이며,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개설된 동아리입니다. 저희 동아리는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 취득만이 아니라 설문조사를 기획하고 실시하며 ai를 활용한 분석 실습의 활동을 진행합니다. 이번 연도는 3-4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동아리지만, 내년부터는 전 학년이 참여 가능한 동아리로 변경됩니다.

다음으로는 동아리 학기별 경과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학기에는 앞에 보시는 것처럼 사회조사분석사 시험을 위한 특강과 실기 시험 대비를 위한 간단한 spss 사용법 특강이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서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이 무엇이며, spss는 무엇인지 궁금한 학우분들이 있을 것 같아 간략하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이며 사회복지학과 통계학 분야 관련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인증하는 자격제도를 말합니다.

사회조사분석사는 정기 기사 시험으로 1년에 총 3번의 시험 기회가 주어집니다. 총 3과목의 필기시험과 실습 시험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필기시험 안에는 사회복지조사론이 포함되어 있는 시험입니다. spss는 연구자들을 위한 통계 분석 앱으로 설문지 응답 내용을 분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2학기 경과보고입니다.

2학기에는 졸업시험 및 국가고시 대비, 그리고 사회조사분석사 필기 대비를 위한 사회복지조사론 특강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2학기에 진행될 예정활동은

현재 학술제 주제와 동일하게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 방안을 주제로 한 설문지를 제작하고 설문지를 구체화한 뒤 최종본을 완성하여 설문지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학과 학생들 또는 동아리원 지인들에게 참여를 유도한 뒤 결과를 추합하여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결과를 도출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서 함께 하고 싶은 학우분들은 언제든지 저를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동아리 성과 및 결과입니다.

저희 1학기 동아리 인원은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 중 자격증 도전 인원은 5명이고 자격증 합격한 인원은 1명입니다.

동아리원은 많았으나 자격증 도전 인원이 적은 이유는 실습을 나가는 인원이 대부분이었으며, 그 외 타 자격증을 도전 중인 학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쉬웠던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학년도 동아리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회조사분석사 필기 및 실기시험 준비
2. 사회조사 학습과 설문조사 기획 및 실시
3. AI를 활용한 분석 실습
4. 전 학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 도전은 희망하는 학우만 진행할 예정이며, 저희 동아리는 통계, 조사 분석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학과에서 노트북을 대여할 수 있기에 내년부터는 노트북을 활용하여 분석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발표를 끝내기 전 저희 동아리원 모집에 대해 잠깐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 발표를 듣고 저희 동아리에 관심이 생긴 학우분들은 21학번 임세연! 제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계야 놀자 동아리를 통해 자신의 꿈에 한 걸음 더 나아가며 도전하는 학우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통계야 놀자 동아리 경과보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자람 동아리 경과보고”

“마음자람”	
지도교수	장 온 정 교수
회 장	이 서 원(4학년)
부 회 장	김 민 채(4학년)
팀 원	박주현(4학년), 박지훈(3학년), 박정원(3학년), 이호준(3학년), 강진(2학년), 송두림(2학년), 이상훈(2학년), 길은서(1학년), 최은정(1학년), 홍신애(1학년), 황수연(1학년)

안녕하세요.

청소년 지도 상담 동아리 마음자람 경과보고 발표를 맡은 차기 회장 21학번 강진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에는 8명이 있지만

총원 13명으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전 학년이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으며

담당 교수님으로는 장온정 교수님이시며 밑으로 20학번 이서원 회장과 21학번 김민채 부회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동아리에서는 청소년과 관련된 학습 활동 참여 및 이해 증진을 도모하고

앞에서 다룰 내용이지만 대체적으로 도구를 이용한 활동을 하면서 학우 간 원만한 대인관계 능력 향상 및 사회성을 발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근본적인 목표는 청소년 상담사 3급 및 청소년 지도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있습니다.

저희 1학기 때 마음자람 활동 내용으로는 1학기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 활용 활동과 2학기에는 집단상담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1학기의 세부내용으로는 감정 훈련 , 에니어그램을 통한 성격 해석과 자기이해 , 가치 게임을 활용한 자기 성찰, 비폭력 의사소통이 있습니다.

이어서 2학기의 세부내용으로는 친구관계 형성 및 촉진기법과 또래상담 기법 익히기와 대학 생활에서의 사담 기법 활용하기를 진행하였습니다.

보시는 이 사진은 에니어그램을 통한 성격 해석 활동입니다.

에니어그램 활동지를 통한 청소년의 자기이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치를 구매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가치를 구매하고 싶으신가요?

세상엔 정말 다양한 가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겐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이 가치라 생각할 수 있고 선택한 직업의 성공을 혹은 매년 주어지는 해외여행권 등 사람들마다 각기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칩을 통해 경매를 진행하며 자신이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를 구매하는 활동을 하며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신의 사례를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를 듣고 떠오르는 나의 감정을 카드로 뽑아 왜 그 카드를 뽑았는지 설명하며 다른 학우들이 사례에 대해 공감하는 청소년 상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 활용을 통한 교육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전광역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강사님을 초청하여 집단상담을 통해 또래상담을 할 수 있는 기법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사랑 어울 한마당에서의 마음자람 부스는 포토존을 운영하였습니다.

포토존의 진행한 이유 : 만들기 부스를 하려고 했으나 이미 대부분의 동아리에서 만들기 부스가 진행되고 있었고 저희는 '남는 건 사진이다'라는 생각으로 장애 아동들과 아동들의 가정과 선생님들에게 좋은 추억을 선물해주기 위해 포토존을 운영하였습니다.

젊음은 실수와 도전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것이 바로 성장의 밑거름이다.라는 말을 아시나요? 사회복지는 이론도 중요하지만 경험 또한 중요한 바탕이 되는 밑받침이 됩니다. 저희 마음자람에서는 실수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일에도 도전할 수 있는 젊음을 바탕으로 동아리를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청소년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마음자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함께 성장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상 차기 회장 강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어 공연

“선택의 길목에서” & “시작의 길목에서”

“소리없는 사랑”	
지도교수	최 윤 정 교수
회 장	김 선 주(3학년)
부 회 장	김 민 주(2학년)
팀 원	김지우(3학년), 윤소연(3학년), 진정연(3학년), 김진영(2학년), 문서하(2학년), 박은새(2학년), 정혜림(2학년), 손현우(1학년), 김정민(1학년), 김혜빈(1학년), 류세빈(1학년), 박지혜(1학년), 변하람(1학년), 이순필(1학년), 전진아(1학년), 조한결(1학년), 최서윤(1학년), 최유리(1학년)

시설에 의존하는 장애인과 그 가족, 탈시설을 지지하는 사회복지사, 시설을 운영하는 입장 등 다양한 시각을 통해 탈시설화의 복잡한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연극 대본: "선택의 길목에서" & "시작의 길목에서"

등장인물:

주인공(세빈): 30대 초반 여성. 지적장애+신체장애를 가지고 있고 오랫동안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자립에 대한 욕구와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 중이다.

어머니(지우): 세빈의 어머니, 딸이 시설에서 나가는 것을 반대하며 안정성과 안전을 중시하는 인물.

사회복지사(진영): 탈시설화를 지지하며 세빈의 자립을 도우려는 사회복지사.

시설장(호석): 세빈이가 생활하는 시설의 책임자. 시설이 장애인들에게 안전하고 필요한 곳이라고 믿는다.

동료(순필): 단기 체험홈에서 자립을 준비하고 있는 장애인으로, 세빈에게 자립의 장점과 어려움을 이야기해 주는 인물.

1막: 시설 내부

세빈: (혼잣말)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할까? 나도 나가서 살 수 있을까? (한숨을 쉰다) 밖은... 무섭지 않을까? 그래도... 여기보단 자유로울 텐데...

(어머니 지우가 들어온다.)

지우: 세빈아, 오늘은 어땠니? 시설에서 불편한 건 없었어?

세빈: (고개를 돌리지 않고) 괜찮아. 그냥... 그럭저럭.

지우: (다정하게) 그래도 여기선 네가 필요한 건 다 받을 수 있잖아. 병원도 가깝고, 선생님들도 잘 챙겨주고...

세빈: (작게) 응, 근데... 나도 나가보고 싶어. 다른 사람들처럼.

지우: (깜짝 놀라며) 뭐? 세빈아, 너 혼자서 밖에서 어떻게 살아? 여기는 안전하고, 엄마도 네가 여기 있는 게 제일 마음이 놓여.

세빈: (불만스럽게) 엄마, 여기선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없어. 나도 선택하고, 나도 결정하고 싶어.

지우: (걱정하며) 세빈아, 넌 여기서 안전하잖아. 밖에서는 누가 널 돌봐줄 수 있을지 모른단 말이야. 엄마는 걱정돼.

2막: 사회복지사와의 상담

(무대는 시설의 상담실로 바뀐다. 세빈이와 어머니, 사회복지사 진영이가 앉아 있다.)

진영: 세빈 씨가 탈시설을 원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세빈 씨처럼 자립을 원하는 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중요해요. 자립을 원하신다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어요.

지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그런데 정말 이 아이가 혼자서 생활할 수 있을까요? 자립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진영: 맞습니다. 탈시설이 쉬운 과정은 아니에요. 바로 자립한다는 것은 물론 어려운 일이죠. 저희가 세빈이가 자립할 수 있도록 단기 체험 홈으로 자립을 준비하는데 도와줄 수 있습니다.

세빈: (조심스럽게) 나도 시도해 보고 싶어요. 여기서는 그냥 지내는 거 말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지우: (단호하게) 세빈아, 그건 말처럼 쉽지 않아. 네가 밖에서 생활하려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

진영: 물론 어머니의 걱정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장애인들도 자신만의 삶을 살 권리가 있어요. 시설 밖에서의 생활은 쉽지 않겠지만, 우리가 함께 도울 수 있습니다.

지우: (반박하며) 그건 이상적인 이야기일 뿐이에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만약 세빈이가 나가서 잘못되면, 그때 어떻게 하실 건가요?

(조명이 서서히 꺼짐)

음악 : 누군가의 빛나던 1절

3막: 탈시설을 준비 중인 동료의 방문

(순필이 들어온다.)

순필: 세빈아! 잘 지냈어? 너도 탈시설 생각 중이라면서?

세빈: (고개를 끄덕이며) 응... 그런데 엄마가 많이 반대해. 나도 좀 무서워.

순필: 나도 처음엔 많이 무서웠어. 시설에서 오래 지내다 보면, 밖이 낯설고 두려울 수밖에 없지. 근데 단기 체험홈에서 한 달 살아 보니까 점점 적응이 되더라.

세빈: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그럼, 혼자 사는 게 정말 괜찮아?

순필: 처음엔 힘들었지. 집 정리도 혼자 해야 하고, 가끔은 정말 외롭기도 해. 근데, 자유가 있어. 내가 내 생활을 스스로 꾸려나가는 느낌이었어. 그게 참 좋아.

세빈: (망설이며) 나도 해보고 싶긴 한데... 만약 실패하면 어떡하지?

순필: 실패해도 괜찮아. 중요한 건 시도해 보는 거야. 넌 충분히 할 수 있어, 세빈아.

4막: 시설장과의 대화

(세빈이와 어머니, 박 원장이 앉아있다.)

호석: (침착하게) 세빈 씨가 단기 체험홈을 실시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세빈 씨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게 더 안정적일 수 있어요. 여기는 필요한 서비스가 항상 제공되잖아요.

세빈: (고개를 숙이며) 그런데... 저도 밖에서 혼자 살아보고 싶어요.

호석: (고개를 끄덕이며) 음... 하지만 세빈 씨가 겪을 어려움도 생각해 보셔야 해요. 시설 밖에서 혼자 사는 건 더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해요. 가끔은 지원이 제때 오지 않을 수도 있고요.

지우: (눈물을 글썽이며) 맞아요. 세빈이가 나가서 힘들어지면 저도 힘들 거예요. 시설이 더 안전하고 안정적일 거라 믿어요.

호석: 맞습니다. 여기서는 세빈 씨가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자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안전과 보호입니다. 세빈 씨가 곧 가실 단기 체험홈을 통하여 시설이 더 편하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원장과 어머니는 무대에서 나감, 세빈이는 고민에 빠진다, 어두운 조명)

세빈: (혼잣말)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어머니도, 원장님도 날 걱정하는데... 그래도, 나도 내 삶을 살고 싶은데... 이게 맞는 걸까?

5막: 단기 체험홈을 시작한 세빈

진영: 앞으로 이곳에서 2박 3일로 5회기동안 단기 체험을 실시합니다. 자립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많이 진행될 거예요!

세빈: 저의 자립을 위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립에 대한 준비가 없었다면 더 힘들었을 거예요. 이제 용기를 얻었습니다.

지우: (한숨을 쉬며) 그래, 네가 하고 싶은 걸 막는 건 어머니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 대신, 어머니도 걱정하니까 조심스럽게 해보자. 어려우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잊지 말고.

세빈: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 엄마. 나 정말 열심히 해볼게.

진영: 세빈씨 5회기 동안 조리법, 마트에서 장보기, 시내 돌아다니기 등 다양한 자립을 위한 준비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세빈: 네 선생님 저 진짜 열심히 배울거예요.

진영: 응원합니다 세빈 씨.

6막: 새로운 시작

(무대는 작은 자립 주택으로 변하고, 세빈이가 새로운 집에서 첫날을 맞이하는 장면이다. 그는 조심스럽게 짐을 정리하는 중)

진영: 세빈 씨는 자립에 대한 준비가 끝나고 자립 주택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삶을 응원합니다.

세빈: (작게 웃으며) 이제 내 삶이 시작이네... 많이 두렵지만, 천천히 해보자. 난 할 수 있어.

(조명이 천천히 꺼지며 연극이 끝난다.)

엔딩 음악: 시작 - 가호

목원대학교 사랑사랑 사회복지학과
제30회 학술제 자료집

- 발행인 : 김 동 기 교수
 - 편집인 : 전 예 림
 - 발행처 :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북로 88
 - 전화 : 042-829-7510
 - 팩스 : 042-829-7511
 - 홈페이지 : <http://www.mokwon.ac.kr/sw/>
-



사람사랑 사회복지학과 제 30회 학술문화제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D:REAM 학생회